【 2017.9.19(화) 강원일보 】

건설협회 도회 회원친선 체육행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8일 홍천 힐드로사이CC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선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강원경제인페스티벌' 오늘 정선서 개막

하이원리조트서 이틀간 강원경제인상 시상식도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이 19일 오후3시 정선 하이원리조트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막한다.

강원경제인들의 도약과 화합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단체장, 금융·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강원지역경제의 현황과 비전을 모색한다. 이날 개막식과 함께 제11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열린다.

대상인 창조기업상을 비롯해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 5개 부문 수상자들이 총 7,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 후에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강원경제인포럼이 열린다. 최근 국내외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의 사회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평창올림픽 관광분야 레거시 창출 방안에 대해 허중욱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강원도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조찬강연을 하고, 경제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강원경제인골프대회가 펼쳐진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2017.9.19(화) 강원도민일보 】

2017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도회장 오인철)는 18일 홍천 힐드로사이CC에서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 2017.9.19(화) 건설경제 】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사업자 계약금액 추가되면

하도급 금액도 상향조정 의무화

공정위, 국회 업무계획 보고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직권조사
내달 중 '신고포상금제' 본격시행
담합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 연장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비롯,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 체계 혁신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 중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연 2회에 걸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사항을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공기가 늘어나 원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률상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의무는 설계변경시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편법적 기술유용 차단을 위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 간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담합을 지목, 상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담합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기업인수·합병)에 적극 대응하고 R&D(연구개발) 경쟁 봉쇄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를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 및 소비자친화적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각종 조사 및 제재 등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한 법집행 체계의 신뢰성 제고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SOC 예산 또 '가위질' 하나

기재부, 지출구조조정 돌입… 이번엔 질적 개선에 초점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올해 대비 4조4000억원이나 감액한 정부가 또다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찾아나섰다.

앞으로는 '양적'이 아닌 '질적'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나 SOC 등 물적 투자는 여전히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향후 지출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및 위원회와 공유하고 이에 따라 부처별 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세금 및 규제완화 등 초기부터 총력 지원에 나서는 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과제에는 보상체계 혁신 및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양적인 구조조정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OC 등 물적투자는 여전히 1순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앞으로도 5년간 연평균 7.5%씩 줄이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12대 재정 지출분야 중 최대 감액률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처별 구조조정 과제를 선정한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 2017.9.19(화) 건설경제 】

유주현 건협 회장, 오만 등 중동 3개국 방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18~23일까지 6일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건설업계 대표 자격이다.

수주지원단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서 저유가 등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최근 발주를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자 꾸려졌다. 수주지원단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해외건설·인프라 부문을 담당하는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오는 23일에는 UAE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한라, 쌍용건설,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동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낭보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단련, 22일 건설기능경기대회… 14개 직종 227명 경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22일 충북 음성군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국내 건설기능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건설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등 14개 직종에서 선발된 227명의 건설 기능인들이 참여한다.

건설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5회째다.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연수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